



‘꼭꼭 숨어라’로 돌아온 아이칠린 걸그룹 아이칠린이 27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첫 번째 미니앨범 ‘브릿지 오브 드림스’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타이틀곡 ‘꼭꼭 숨어라’를 선보였다. “아이칠린만의 매력을 3분 5초 만에 들려드릴 수 있는 매력적인 곡”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주현희 기자 teht1147@donga.com

할리우드 슈퍼 히어로물에 도전장 내민 K콘텐츠

탄탄한 스토리... ‘한국판 어벤져스’ 뜬다

디즈니+ 하반기 공개 드라마 ‘무빙’ 한효주·류승범 등 초능력자로 변신 제작비 500억원, 한국드라마 최대 세계관 갖춘 ‘부활남’도 촬영 준비

감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속에서도 글로벌 인기를 과시하고 있는 할리우드 슈퍼 히어로물에 케이(K) 콘텐츠가 본격적인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탄탄한 구성의 원작 웹툰과 VFX(시각특수효과) 기술력 등을 바탕으로 할리우드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슈퍼 히어로물의 무대를 한국으로 옮기고 있다.

●한국판 ‘어벤져스’ 탄생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하반기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디즈니+를 통해 공개되는 20부작 드라마 ‘무빙’이다. 초능력을 숨긴 채 살고 있는 아이들이 부모들과 함께 거대한 위험에 맞서는 이야기를 그린다.



‘무빙’, ‘아일랜드’ 등 웹툰을 원작으로 한 한국형 슈퍼 히어로물들이 연이어 제작되고 있다. 사진은 강풀 작가의 웹툰 ‘무빙’.

사진제공 | 스튜디오뉴
류승범, 한효주, 조인성, 차태현, 류승범, 김성균 등 스타급 배우들이 대거

출연하는 드라마는 미국 마블스튜디오의 ‘어벤져스’나 DC스튜디오의 ‘저스티스 리그’ 시리즈처럼 여러 명의 슈퍼 히어로가 함께 등장한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초인적 오감의 소유자부터 날개 없이도 비행이 가능한 캐릭터까지 활약한다.

기대하게 하는 또 다른 핵심은 분단 등 한국을 둘러싼 특수한 상황과 소재를 녹여낸다는 점이다.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할리우드와는 차별화하는 한국형 슈퍼 히어로물을 겨냥한다. 원작자인 강풀 작가가 직접 시나리오도 집필했다. 역대 한국 드라마 최대 제작비인 총 500억 원이 투입됐다는 점도 규모를 짐작케 한다.

●거대 슈퍼 히어로 시리즈의 시작

특정 슈퍼 히어로 캐릭터들이 잇단 시리즈물을 통해 서로 연결되는 설정과 이야기를 그려내며 ‘MCU’(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라 불리는 ‘세계관’을 형성해

온 것처럼 이과 엮이듯한 시리즈를 목표로 하는 작품도 나온다.

내년 촬영을 시작하는 구교환 주연 영화 ‘신인류 전쟁: 부활남’이다. 죽은 지사할 만에 부활해 슈퍼 히어로로 거듭나는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웹툰 ‘부활남’을 원작으로 한다. 투자배급사 롯데엔터테인먼트와 제작사 용필름은 이를 시작으로 새로운 슈퍼 히어로 캐릭터들을 내세우는 ‘신인류 전쟁 시리즈’를 연이어 선보일 계획이다.

상반기 방영 예정인 OCN 20부작 드라마 ‘아일랜드’도 ‘슈퍼스트링’ 시리즈의 출발 테이프를 끊는다. 세상을 멸망시키려는 악에 대항하는 이들의 여정을 김남길, 이다희, 차은우 등이 그린다. 제작사 스튜디오드래곤이 웹툰 스튜디오 와이랩과 함께 선보이는 ‘슈퍼스트링’ 시리즈는 다양한 슈퍼 히어로가 갖은 악에 맞서는 내용을 주된 구성으로 14편의 웹툰을 관통하는 설정과 이야기를 이어간다. 이슬미 기자 smlee@donga.com

서예지·조병규... ‘사고친 배우들’ 대거 복귀 시동

서예지, 내달 첫방 드라마 ‘이브’ 출연 조병규는 오늘 공개 OTT 예능 맡아 복귀 놓고 “환영” “불호” 온도차 극명

학교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물의를 일으켜 질타 받았던 연예인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복귀를 환영하는 팬들이 있는 반면, 비판적 여론도 여전히 식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가스타이팅 논란’으로 나란히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정현과 서예지가 최근 각자의 생일을 맞아 1년여 만에 SNS



서예지

를 통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무대 복귀를 선언했다.

김정현도 독립영화 ‘비밀’로 연기 활동을 다시 시작한다. 의문의 살인사건을 풀

려싼 이들의 이야기를 그리는 작품으로, 올해 초 촬영을 마치고 후반 작업 중이다.

지난해 초 주연작 ‘경이로운 소문’의 성공으로 인기를 누리던 중 과거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던 조병규는 28일 티빙 오리지널 예능 ‘전체관람가+;웃버스터’를 통해 복귀한다. 유명 감독들의 단편영화를 공개하는 무대로 조병규는 ‘친구’ 감독 박광택 감독의 ‘스쿨 카스트’ 주연을 맡았다.

2016년에 이어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지속해온 박시연은 25일 SNS 새 프로필 사진을 업데이트하며 활동을 예고했다.

수억 원대 규모의 상습도박 혐의로 실형

을 선고받았던 그룹 S.E.S 출신 수는 최근 TV조선 ‘마이웨이’에 출연해 눈물의 심경 고백을 한 데 이어 인터넷 방송 BJ로 나섰다. 도박 근절 캠페인에 앞장서고 있는 그의 복귀를 반기는 팬들과 인터넷 방송에서 가슴이 드러나는 노출 의상을 입은 채로 춤을 추는 모습을 비판하는 누리꾼이 온라인상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물의를 일으켰던 연예인의 활동 복귀에는 진정성 있는 반성이 먼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연예계 안팎에서는 입을 모은다.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는 27일 “연예비즈니스는 강력한 ‘호불호 산업’이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불호’의 이미지를 벗지 못한다면 표면적인 복귀는 무의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슬미 기자

시청률 1%대...연예계 소재 드라마 잔혹사

tvN 드라마 ‘별뿔별’ 출발부터 잠음 “공감 어려워” “그들만의 세상” 혹평 지난해 JTBC ‘아이들...’ 등도 쓴맛

연예계 ‘속살’을 드러내겠다고 호기심을 키운 tvN 새 금토드라마 ‘별뿔별’이 1%대 (이하 닐슨코리아)의 저조한 시청률로 출발해 아쉬움을 사고 있다. 최근 스타와 매니저 등 연예계 뒷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들

이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면서 방송가에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소재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나오고 있다.

22일 첫 방송한 ‘별뿔별’은 연예기획사 홍보팀장과 톱스타의 사랑 이야기다. 기자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스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신경 써야 하는 기획사 직원들의 애환을 다채롭게 그려냈다.

그러나 시청자 사이에서는 “신기하지만 공감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

다. 실시간 댓글창에는 스타와 소속사 직원의 러브라인이 좀처럼 와 닿지 않는다는 댓글도 달린다. 일부 연예관계자들은 “방송사 사정을 잘 아는 연예계 종사자들은 공감할지 몰라도 시청자들이 흥미로워할지 의문”이라며 “차질 ‘그들만의 세상’으로 비치기 쉽다”고 말했다.

연예계 소재로 시청률 참패를 맞은 드라마는 또 있다. 아이돌 그룹들의 치열한 경쟁을 담아 지난해 방영한 KBS 2TV ‘이미테이션’, JTBC ‘아이들:더 룩’은 1%대 시청률에 그쳤다. 2016년 미국드라마 ‘양투라지’를 리메이크해 연예기획사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tvN ‘안투라지’도 2.3%의

저조한 시청률로 종영했다.

엇비슷한 소재가 시청자에게 신선하게 다가갔던 2000~2010년대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다. 2008년 SBS ‘온에어’, 2015년 KBS 2TV ‘프로듀사’는 방송 제작진과 스타들의 이야기로 각각 25.4%, 17.7%의 시청률을 기록하는 등 크게 히트했다. 이재근 대중문화평론가는 27일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경로로 연예계 소식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최근에는 더 이상 뒷이야기만으로는 시청자 관심을 끌기 어렵다”며 “색다른 시선으로 소재를 풀어가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지희 기자 yjh0304@donga.com



연예뉴스 HOT 5

채널A ‘DIMF 뮤지컬스타’ 내달 10일 방송

채널A ‘2022 DIMF 뮤지컬스타’가 5월 10일 밤 11시 10분 8회에 걸쳐 방송한다. ‘뮤지컬스타’는 차세대 뮤지컬 세대를 찾는 프로젝트로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DIMF)이 2015년 시작해 올해로 8번째를 맞는다. 채널A를 통해 2019~2021년 시즌 1~3이 방송해 화제를 모았다. 제작진은 “새롭게 구성된 출연진과 엄격해진 경연물이 더해질 것”이라며 “단 한 팀에게만 주어지는 ‘뮤지컬스타’ 우승의 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 것일지 관심이 쏠려 달라”고 밝혔다.

지민·하성운 OST ‘블루스’ 100개국서 1위



그들 방탄소년단의 지민과 가수 하성운이 함께 부른 tvN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OST가 100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차트 1위를 차지했다. 27일 OST 제작사 남남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두 사람이 부른 ‘위드 유’(With you)는 전란 기준으로 미국, 영국, 일본 등 100개 국가 및 지역 아이튠즈 톱 송 차트에서 1위를 기록했다. 제작사 측은 “한국 솔로 아티스트이자 드라마 OST 가운데 최단 시간에 100개 국가 1위를 달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 5위에 진입했다.

佛배우 랭동,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 위촉

프랑스 배우 랭동이 올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으로 위촉됐다. 27일(한국시간) 영화제 측에 따르면 랭동을 비롯해 9명의 심사위원을 발표했다. 프랑스 배우가 심사위원장을 맡은 건 2009년 이자벨 위페르 이후 13년 만이다. 랭동은 2015년 스테판 브리제 감독의 영화 ‘아버지의 초상’으로 칸 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2019년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기생충’의 주연인 송강호가 심사위원으로 활약했다. 칸 영화제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과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브로커’ 등 총 21편이 황금종려상을 겨루게 됐다.



케플러 데뷔곡, 日 레코드협회 ‘골드’ 인증

걸그룹 케플러의 데뷔곡 ‘와다다’(WA DA DA)가 한국 걸그룹 데뷔곡 가운데 역대 가장 짧은 기간에 일본 레코드협회 ‘골드’ 인증을 받았다. 27일 일본 레코드협회에 따르면 1월 발표한 ‘와다다’가 누적 재생 횟수 5000만 회를 넘어 3월 기준 골드 인증을 받았다. 케플러는 데뷔 3개월 만에 골드 인증을 받아 데뷔곡 기준 최단기간 인증이라는 기록을 썼다. 이들은 지난해 방송한 엠넷 ‘걸스플래닛999: 소녀대전’을 통해 결성한 걸그룹이다.

방심위, 폭력적 장면 논란 ‘나는 솔로’에 권고

남성 출연자의 강압적인 언행과 태도를 그대로 방송해 논란이 된 SBS 플러스 ‘나는 솔로’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권고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12일 방송심의소위원회 정기회의에서 ‘남성 출연자가 여성 출연자를 몰아세우거나 겁을 주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제작진의 개입 없이 적극적으로 방송해 시청하기 불쾌했다’는 민원을 받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이 법정제재를 받을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 내리는 행정지도에 해당한다. 앞서 ‘나는 솔로’ 4기에서 남성 출연자 영철(가명)이 여성 출연자 정자(가명)를 향해 무례한 말과 태도를 보여 문제가 됐다.